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한 태도 조사 -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전 우 택*

I. 서론

본 연구자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 및 의식을 조사한 바 있으며¹⁾, 특히 2002년 5월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63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회와 통일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²⁾ 그 연구 결과,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선택은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좌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공산주의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고, 남한에 대하여 매우 양가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1)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109-167면; 전우택·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보고,"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 2) 전우택, "탈북자들을 통하여 본 북한 주민 의식 조사 I," 미발간(2003).

령, 학력에 따른 의식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직접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구 결과는 좀 더 심화된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첫째,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은 남한의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소위 ‘햇볕 정책’이 이루어진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 많은 남북간 교류가 있었으며,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간 중 북한 주민들의 남한과 통일에 대한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어떤 교류 형태가 앞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가를 주민들의 의식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둘째,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묶여 있고, 김일성은 사후인 지금도 ‘영원한 주석’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종합, 분석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집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³⁾

김정일에 의하여 제시된 ‘유일사상 10대 원칙’⁴⁾은 북한 정권이

3)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8), 264면.

4) 김정일,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하여,”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171-179면.

주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교육시키고 주입하였는 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서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5. 김일성 동지의 교시집행에는 무조건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10. 김일성 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존재, 그의 카리스마는 실제로 인류 역사상 한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로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종석은 그의 연구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카리스마를 절대화 한 사회질서와 윤리를 새로이 창출해 내는 데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스탈린, 모택동 등의 카리스마와 구별되며, “현대 사회주의와 봉건적 가족국가관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점에서 독특한 카리스마라 설명한 바 있다.⁵⁾ 이종석은 이러한 김일성의 카리스마 생성은 김일성의 항일 정통성을 신화화 시키고, 치열한 권력 투쟁과 숙청을 통한 절대 권력을 기반에 두고, 북한의 모든 새로운 가치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장기간 진행된 당의 학습 체계를 동원한 개인 숭배 조장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였다.⁶⁾ 과거 구 소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의 의식

5)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5), 228-229면.

6) 이종석, 위의 책(1995), 232-233면.

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⁷⁾ 그리고 집단기억 왜곡 현상을 통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대상에 향한 독특한 감정과 기억을 가지는 현상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었다.⁸⁾ 본 연구자도 논문 “집단기억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의 이해”⁹⁾에서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외부로 표현되는 태도가 얼마나 신화화 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바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접 연구가 불가능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를 위하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과 남한에 대한 의식을

7) Bakhurst D, “Social memory in Soviet thought,” *Collective remembering*(London: Sage, 1990); Hosking GA, “Memory in a Totalitarian Society,” *The Case of the Soviet Union*(New York: Basil Blackwell Inc, 1989).

8) Neisser U, “Memory observed,” *Remembering in natural context* (San Francisco: Freeman, 1982); Vygotsky LS,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Barcelona, Critica, 1979); Connerton P, *How Societies Remember*(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Stern JP, *Hitler: The Führer and the People*(London, 1975); Erdelyi MH, “Repression, reconstruction and defense: History and integration of the psychoanalytic and experimental frameworks,” *Repression and dissocia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1-31; Rime B, “Mental Rumination, social sharing, and the recovery from emotional exposur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pp. 271-292; Tetlock PE, Peterson RS, McGuire C, Chang S, Feld P, “Assessing political group dynamics: A test of the group think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1992), pp. 403-425.

9) 전우택, “집단기억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5권2호(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0), 179-196면.

조사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인식과 그 내용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과 김일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의미를 가질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설문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하여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02년 7월에 입소하고 있었던 88명에게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02년 10월에 입소하고 있었던 126명에게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1차 조사를 실시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에 총 214명의 탈북자들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입소하여 있는 사람들 중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 본 설문 조사에 동의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외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은 없었다. 설문 형식은 응답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응답만을 선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응답자 중에는 문항에 따라 복수로 응답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복수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문항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통계 방법은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chi-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징에서 학력이나 연령대 등 3개 이상의 내부 내용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ANOVA를 실시하였다. 특정 설문 항목간의 응답 내용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설문문항간 관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p값이 0.05 이하인 것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Window용 SAS 8.1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

응답자 총 241명의 인구학적 특징이 <표 1>에 있다. 남자는 126명(52.3%), 여자는 106명(44.05%), 무응답자가 9명(3.7%)이었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85명(35.3%), 30대 81명(33.6%)으로 주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인민학교 졸업이 16명(6.6%), 고등중학교 졸업이 160명(66.4%), 전문대학 졸업이 29명(12.0%), 대학교 졸업이 17명(7.1%), 기타 8명(3.3%)으로 대부분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었던 사람들이 32명(13.3%)이었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198명(82.2%)이었으며 무응답자가 11명(4.6%)이었다. 응답자가 북한에서 탈출하여 나온 연도는 1997년이 38명(15.8%), 1998년 89명(36.9%), 1999년 26명(10.8%)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의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남한으로 입국한 연도는 2002년이 226명(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중국 등 제 3국에 체류한 기간은 4-5년이 89명(36.9%), 5-6년이 36명(14.9%)으로 가장 많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 3국에 체류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2. 문항별 결과

설문 조사에 대한 문항 별 응답 결과가 <표 2>에 있다.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한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의 북한 지원 및 통일에 대하여

① 남한이 북한에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주

민들의 남한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남한을 더 친근하고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 154명(63.9%), “남한에 대하여 더 불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 2명(0.8%), “남한에 대한 생각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47명(19.5%), 무응답이 38명(15.8%)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함에 따라 북한 사람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② 북한 주민들은 왜 남한이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같은 민족이라서 어려운 상황의 북한 주민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하여”가 150명(62.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즉, 북한 주민들은 비교적 남한이 북한을 돕는 것을 순수한 의도에서 돕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남한의 지원 의도를 좀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북한을 사상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22명(9.1%), “북한이 전쟁 등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15명(6.2%),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8명(3.3%) 등으로 지원 이유를 생각한 반응도 있었으나 비교적 소수 의견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북한 지원을 순수한 의도에서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한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③ 만일 현재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이 끊긴다면, 그것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69명(28.6%),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73명(30.3%),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76명(31.5%),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17명(7.1%), 무응답 6명(2.5%)의 응답이 있었다. 이것은 어떤 정도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8.9%가 되어 남한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④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이고,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83명(34.4%), “통일이 되어야 지금 북한의 경제적 가난과 식량난의 고통이 끝나므로” 81명(33.6%)의 두 가지 응답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공산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7명(2.9%)에서만 나왔다. 이것은 본 설문이 탈북한 사람들을 통하여 조사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금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화통일이라는 정치, 사상적 이유보다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적 이유와 현재의 경제적 고통을 끝내기 원하여라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⑤ 최근 3년 사이에 일반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과거나 별 차이 없다” 127명(52.7%),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74명(30.7%),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30명(12.4%)으로 나타나,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김정일의 국가 통치를 하는 개인적인 능력이 실제로 우수하기 때문에”라는 반응은 26명(10.8%)에 불과한 반면,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라는 반응이 168명(69.7%)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유능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그가 위대한 김일성의 아들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라는 의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② 북한 주민들이 현재 김정일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것에 “김정일의 통치 이후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가 133명(55.2%)으로 가장 큰 응답을 차지하여 김정일에게는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그의 통치에 대한 국민 여론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김정일이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 김일성 덕분에 권력을 승계 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30명(12.4%), “김정일의 국가 통치를 하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2명(9.1%)에게서 있었다. 즉,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한 그 자체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김정일 집권 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일반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72명(29.9%), “어느 정도 그렇다” 90명(37.3%), “별로 그렇지 않다” 36명(14.9%), “전혀 그렇지 않다” 37명(15.4%)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의 67.2%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김일성을 실제로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결과였다. 이것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로 보였다. 그러나 반대로 30.3%의 사람들은 그런 선전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이라고 주민들이 보지 않고 있다고 반응을 한 것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탈북한 사람들의 응답이므로, 실제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좀더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④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가 민족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99명(41.1%)으로 가장 많이 있었다. 그 다음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을 지켜냈기 때문에”와 “공화국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각각 20명(8.3%)씩 나왔고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었기 때문에”가 17명(7.1%), “주체사상이라는 위대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가 6명(2.5%)으로 나왔다. 이 질문에 하나의 응답을 고르지 못하고 여러 개를 선택하여 무응답 처리된 것이 79명(32.8%)으로 나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김일성이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매우 민족적인 이유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통치와 그의 지도자 됨의 정당성을 그의 항일 운동에 두고 그것을 철저하게 선전, 교육시켜왔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이들 반응에 있어 북한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였거나, 주체사상을 창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연관된 측면에서의 응답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및 주체사상 창시자로서의 지도자 김일성을 강조하고 교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데 있어 그가 공산주의 지도자라는 것보다도 그가 항일 독립투사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그렇게 가난한 경제적 사정을 현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일성에 대한 존경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비록 지금 공산 체제 하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이제는 남의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닌 주인

으로 세상을 살게 해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결과 분석

본 설문지의 응답을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의 통계 결과가 <표 3>에 있다. 결과에서 연령과 노동당원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 내용은 없었다.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이 나온 성별과 학력을 가지고 언급한다.

1) 성별에 따른 결과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남녀 모두에서 “같은 민족이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나, 남자가 65.8% (73명)인 데 비하여 여자는 72.9% (70명)로 더 높게 나왔고, “북한을 사상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라는 응답을 남자는 13.5% (15명)가 응답한 반면 여자는 5.2% (5명)로 나타나 남녀간에 응답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 차이로 이 질문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597$, $p=0.001$). 즉, 남한의 북한 지원을 여자 응답자들은 좀더 순수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이유”에 대하여 남자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경제적 가난과 식량난의 고통이 끝나므로”가 52.0% (53명)로 가장 많았고,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이고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2% (39명)였던 반면에, 여자는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이고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 49.4% (40명)로 가장 많았고,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경제적 가난과 식량난의 고통이 끝나

므로”의 응답이 29.6%(24명)로 나타나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008$, $p=0.002$). 즉, 남자들은 통일의 이유를 좀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좀더 민족 감정의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존경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자는 “어느 정도 그렇다”가 41.3%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23.1%, “별로 그렇지 않다”가 20.7%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40.6%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가 35.8%, “별로 그렇지 않다”가 8.5%로 나타나 응답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chi^2=11.512$, $p=0.09$). 이것은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보다 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존경하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을 지켜냈기 때문”이 21.5%로 4.5%의 남성들 보다 더 높았던 반면, “민족을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에는 56.9%로 남자의 68.5%보다 낮게 나왔다($\chi^2=10.690$, $p=0.030$).

또한 미국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응답이 여성들은 18.4%로 응답하여 남성의 7.6%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응답에 있어 성별간의 차이를 보였다($\chi^2=7.942$, $p=0.019$).

이상과 같은 결과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볼 때, 북한 주민들의 남녀간의 의식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결과를 보면, 통일의 이유나 미국에 대한 감정에서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더 강한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에 대하여 더 존경하고 있는 태도가 있어 북한 정권이 그 동안 실시해 온 선전 및 북한의 전통적 사고에 여성들이 좀 더 가까운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 북한 출신 사람들의 성별에 따른 사고와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학력에 따른 결과

응답자 집단을 가장 일반적인 학력인 고등중학교 졸업과 그 이하(146명, 73.0%)와 전문대학 이상(40명, 19.1%)으로 나누어 그 응답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질문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이었다. 즉,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같은 민족이라서 어려운 상황의 북한 주민을 진심으로 돕기 위하여”가 71.8%, “북한을 사상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가 10.9%인 데 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집단은 “같은 민족이라서 어려운 상황의 주민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하여”가 57.1%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고, 대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가 19.0%,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잘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가 11.9%로 높게 응답하여, 두 집단간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215$, $p=0.000$). 전체적으로 보아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¹⁰⁾ 이것은 본 설문이 응답자 개인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었으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였다.

10) 전우택, 앞의 글(2003).

IV. 토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인다.

1. 북한 주민들의 강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사람은 모두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민족적 차원에서 비교적 순수하게 보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남한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것도,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끝내기 원해서라는 것도 있으나,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문제를 매우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접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 있어 민족주의적 호소를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개방된 체제 하에서 살면서 매우 세계화되고 국제화되어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보다 민족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약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남한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일 경우 의외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하고 적절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북한 주민들이 소위 ‘김일성 신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매우 크며, 그것은 주로 그를 일제에서의 해방자로서 보고 있기 때문이며,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클수록 더 김정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김일성 신화’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가 있고, 그것이 그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북한 출신 주민들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김일성의 항일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평가가 남북한 갈등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과 선전에 의하여 김일성을 일제 식민지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최고의 지도자라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항일 투쟁을 한 여러 사람 중 하나 정도이며, 그를 항일 투쟁의 민족 최고 지도자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날조라 생각하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의 차이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항일 투쟁에 있어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강력한 코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이미지와 신화가 통일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자’가 아닌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것은 북한

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극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김일성의 이미지는 그다지 훼손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 이후 구 북한과 남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김일성’을 언제든지 등장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도 현 시점에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신화’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신화’에 대한 이해와 그 처리에 대하여는 본 연구자의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¹¹⁾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즉, 이러한 신화, 또는 집단 기억 현상은 사회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용 모델로 하여 자신의 신격화를 추진하다가 좌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의 예에서도 보듯이¹²⁾, 일반 국민들과 지식인층은 그러한 지도자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의 김일성 신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1단계(통일 이전 시기) : 통일 과정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면서 ‘신화 파괴’의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굳

11) 전우택, 앞의 글(2000).

12) 전우택·민성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갈등과 그 해소 방안: 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6권1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2), 155-223면.

게 믿고 존경하는 김일성을 폄하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는 옳다 그르다는 식의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2단계(통일 후 10년까지) : 일단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통일 초기에는 김일성을 폄하하는 식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고증과 평가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워낙 긴 기간 동안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훼손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을 것이므로 학술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도 있고 좀 더 긴 시간이 필요로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족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바로 김일성에 대한 '신화 파괴'를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은 통일 초기에 북한 출신 국민들의 통일 감정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다시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안에서 '식민지 백성 또는 이등 국민'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크게 불안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자존심과 이익을 지켜 줄 지도자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지도자는 바로 과거 일제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김일성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오히려 김일성에 대한 '신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새로운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의식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학술적 작업은 꾸준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3단계(통일 후 10년에서 20년 사이) : 통일 이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 때는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새로운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기 시작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 매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의식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김일성에 대한 객관적인 학술 연구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구 북한 출신 사람들도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4) 4단계(통일 후 20년에서 30년 사이) :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구 북한 출신 신 세대들은 역사나 사상에 대하여는 무관심해 질 것이다. 결국 통일 이후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식의 선전은 없을 것이므로,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생각하는 식의 의식은 없어져 갈 것이다. 그 때는 객관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갈등을 야기할 소지는 적어진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30년 정도를 생각한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의식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3.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두려움의 양가 감정적 태도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사상성이 강한 나라이므로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것을 막기 위하여 북한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라는 식의 선전을 철저히 해왔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민족의 독립 차원에서 정당화시키는 의식을 강화시키고, 내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고통을 자부심으로 바꾸도록 노력한 당의 선전과 노력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구 공산국가였던 차우체스쿠 시절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통치 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의 혼합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이런 양가적 감정, 즉 북한 국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이런 의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일 과정에서 적절히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과 이후에 북한 출신 사람들의 과거 북한 체제에서 가져왔던 삶의 내용과 의미, 그 자부심, 그리고 함께 있었던 고통을 모두 인정해주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 동기를 비교적 순수하게 보고 있으며, 지원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3) 전우택·민성길, 앞의 글(2002).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나원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 24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과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지원한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남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게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크게 존경하고 있고,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보다도 일제 식민지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독립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김일성 신화'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 지를 정리하였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군사적인 강국을 만들며 자신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통일 과정과 이후에 남한 출신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할 중요한 북한 사람들의 의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통일이란 정치, 경제, 군사 체제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긴 분단의 세월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의 통일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_____. “탈북자들을 통하여 본 북한 주민 의식 조사 I.” 미발간. 2003.
- _____. “집단기억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5권2호. 2000.
- 전우택 · 민성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갈등과 그 해소 방안; 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6권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2.
- 전우택 · 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보고.”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8.
- 김정일.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대하여.”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Bakhurst D. “Social memory in Soviet thought.” In Middleton D and Edwards D (Eds.), *Collective remembering*. London: Sage, 1990.
- Hosking GA. “Memory in a Totalitarian Society.”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In: Memory ed. by Thomas Butler. New York: Basil Blackwell Inc, 1989.
- Neisser U. “Memory observed.” *Remembering in natural context*. San Francisco: Freeman, 1982.
- Vygotsky LS.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

- ses. Barcelona, Critica (Original work published 1930), 1979.
- Connerton P.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Stern JP. *Hitler: The Fuhrer and the People*. London, 1975.
- Erdelyi MH. "Repression, reconstruction and defense: History and integration of the psychoanalytic and experimental frameworks." In J.L. Singer (Ed.), *Repression and dissoci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Rime B. "Mental Rumination, social sharing, and the recovery from emotional exposure." In J.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
- Tetlock PE, Peterson RS, McGuire C, Chang S, Feld P. "Assessing political group dynamics: A test of the group think mo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992.

Abstract

**Study on the North Korean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II
- Survey Result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EON, Woo-Taek*

Objectives: In North Korea, Kim Il Sung is at the center of the national social system and people's consciousness. For future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ns, this study surveyed the thoughts and opin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Kim Il Sung and unification to understand better the ment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general.

Methods: Hanawon, a national institut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recently entered South Korea, provides education for their adaptation to a new society. At Hanawon, 214 defectors were surveyed in the July and October of 2002.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North Korean people think

*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the humanitarian support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 as acts of nationalism and warmth. They stated the two Koreas should be unified to establish 'one nation' and 'to stop the economic difficulty and food shortage' at the similar rate of frequency. North Korean people respect Kim Il Sung very much and the main reason seems to be that "he saved our country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More the men, women were more nationalistic and had ideas that corresponded to the propaganda sprea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the educational level increased, the respondents were more suspicious of the reason for humanitarian support by South Korea.

Conclusions: To make preparation for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n people's ideas about these issues and develop ideas on how to solve these issues in the process and after unification; First, we need to study more about the strong nationalistic mood, second, their strong respect to Kim Il Sung, third, their strong ambivalence about their own country, the feeling of fear and national pride, all of which are in direct conflict with the ideals of the USA,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부록〉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인구통계적 특징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1) 남	126	52.3
	2) 여	106	44.0
	무응답	9	3.7
연령	1) 19세이하	16	6.6
	2) 20-29세	85	35.3
	3) 30-39세	81	33.6
	4) 40-49세	33	13.7
	5) 50-59세	9	3.7
	6) 60세이상	8	3.3
	무응답	9	3.7
학력	1) 인민학교 졸	16	6.6
	2) 고등중학교 졸	160	66.4
	3) 전문대학 졸	29	12.0
	4) 대학교 졸	17	7.1
	5) 기타	8	3.3
	무응답	11	4.6
노동당원 여부	1) 노동당원	32	13.3
	2) 노동당원 아님	198	82.2
	무응답	11	4.6
북한 탈출 연도	1) 1996년 이전	10	4.1
	2) 1997년	38	15.8
	3) 1998년	89	36.9
	4) 1999년	26	10.8
	5) 2000년	23	9.5
	6) 2001년	22	9.1
	7) 2002년	21	8.7
무응답	12	5.0	

남한 입국 연도	1) 2001년	5	2.1
	2) 2002년	226	93.8
	무응답	10	4.1
제 3 국 체류기간	1) 0-1년	21	8.7
	2) 1-2년	22	9.1
	3) 2-3년	23	9.5
	4) 3-4년	28	11.6
	5) 4-5년	89	36.9
	6) 5-6년	36	14.9
	7) 6년 이상	10	4.1
	무응답	12	5.0
전체	전체	241	100.0

〈표 2〉 설문응답 빈도

[질문 1]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남한이 많은 양의 식량, 의약품,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이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을 더 친근하고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	154	63.9
2) 남한에 대하여 더 불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	2	.8
3) 남한에 대한 생각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47	19.5
무응답	38	15.8
전체	241	100.0

[질문 2]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왜 남한이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다고 생각합니까?	빈도	백분율
1) 같은 민족이라서 어려운 상황의 북한 주민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하여	150	62.2
2)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8	3.3
3) 북한을 사상적으로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22	9.1
4) 북한이 전쟁 등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15	6.2
5) 기타	21	8.7
무응답	25	10.4
전체	241	100.0

[질문 3]

만일 현재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이 끊긴다면, 그것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빈도	백분율
1)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69	28.6
2)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73	30.3
3)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76	31.5
4)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17	7.1
무응답	6	2.5
전체	241	100.0

[질문 4]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백분율
1) 통일이 되어야 지금 북한의 경제적 가난과 식량난의 고통이 끝나므로	81	33.6
2)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이고,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83	34.4
3)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공산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7	2.9
4) 기타	20	8.3
무응답	50	20.7
전체	241	100.0

[질문 5]

최근 3년 사이에 일반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백분율
1)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74	30.7
2)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30	12.4
3) 과거나 별 차이 없다.	127	52.7
무응답	10	4.1
전체	241	100.0

[질문 6]

일부 북한 주민들은 현재 김정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빈도 백분율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168	69.7
2) 김정일의 국가 통치를 하는 개인적인 능력이 실제로 우수하기 때문에	26	10.8
무응답	47	19.5
전체	241	100.0

[질문 7]

일부 북한 주민들은 현재 김정일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장 큰 빈도 백분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김정일이 자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 김일성 덕분에 권력을 승계 하였기 때문에	30	12.4
2) 김정일의 국가 통치를 하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2	9.1
3) 김정일의 통치 이후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133	55.2
무응답	56	23.2
전체	241	100.0

[질문 8]

귀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김일성을 '인류 최고의 위인'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백분율
1) 매우 그렇다	72	29.9
2) 어느 정도 그렇다	90	37.3
3) 별로 그렇지 않다	36	14.9
4) 전혀 그렇지 않다.	37	15.4
무응답	6	2.5
전체	241	100.0

[질문 9]

만일 일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백분율
1) 그가 민족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에	99	41.1
2) 공화국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기 때문에	20	8.3
3)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을 지켜냈기 때문에	20	8.3
4) 주체사상이라는 위대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6	2.5
5) 북한 주민들을 잘먹고 잘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17	7.1
무응답	79	32.8
전체	241	100.0